

# 이철우 행정통합 혈안 TK신공항 뒷전...

의성군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 국토부가 의성·군위에 똑같은 화물터미널 지으려고 하는데 이철우 지사는 '뒷집'만 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충격을

의성군 주민들의 성난민심이 '노도'와 같이 거세다. 주민들은 국토부를 향해 서슬퍼런 칼날을 겨누고 충격을 안겼다.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 및 이장연합회는 국토부의 '화물터미널 동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들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일제히 항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10월 의성에는 화물기전용 화물터미널, 군위에는 여객기전용 화물터미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재차 각인시켰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가 의성, 군위에 똑같은 화물터미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뒷집만 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이철우 지사를 욕죄고 있다. 편입지역 주민들은 매일매일 피해와 불안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들은 "이주·생계 대책도 없는데 국방

부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주·생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공격했다. 의성군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 등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약속해서 시작했다.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이 안돼 공항이 무산되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김원석 의성군 공항특위 위원장은 "국토부 안은 화물터미널을 두 개로 쪼개놓은 것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망하는 길이다. 국토부는 지역민의 염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충원 경북도 공항특위 위원장(도의

원)은 "현재 통합신공항 사업은 의성군이 바라던 바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래 확장성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한 동축 '터'를 고집하는 국토부는 경북 전체와 의성군의 미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만 몰두하지 말고 의성군과 경북 전체 미래를 위해 TK신공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앞서 지난달 의성군은 국토부의 의성 화물터미널 동축 제안에 대해 "해당터는 항공 물류와 항공 MRO에 필요한 확장성이 전무, 배후 물류단지를 공항구역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와 이장연합회, 경북도의원, 의성군의원 등이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화물터미널 동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 제공)   
으로 지정할 수 없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용 기자 백재성 기자



경주시가 9일 시청 앞전홀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경주'라는 주제로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주시 제공)

관련기사 4면 경주시, 2024 양성평등주간 한마음대회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 대구·경북 수술실 CCTV 설치 완료... 실효성 논란

단체장일정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0일 오전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회 경북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석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0일 오전 향교에서 열리는 경주향교 추계 석전대회에 참석한다.

촬영 요청 없으면 녹화 없이 수술... 고지 의무화 필요

병원 내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의 무화범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가 완료됐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근거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곳이 설치를 마쳤다. 지난달 13일 기준 지역별로 보면 △서울 717곳 △경기 456곳 △부산 196곳 △경남 131곳 △대구 122곳 △인천 100곳 △광주

91곳 △전남 87곳 △전북 85곳 △충남 76곳 △충북 72곳 △경북 71곳 △강원 64곳 △대전 63곳 △울산 39곳 △제주 31곳 △세종 12곳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161곳 △병원 856곳 △중합병원 313곳 △상급종합병원 47곳 △치과병원 18곳 △치과의원 17곳 △요양병원 1곳 등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와 대리 수술, 성추행 사건 등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의 경우 의료기관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조여은 기자

## 경북도 상습 농경지 침수... 땀질식 응급처방 불과

김홍구 경북도의원, 도내 상습 농경지별 침수원인 조사·분석 맞춤형 개선계획을 별도 수립하라 촉구

도내 상습 농경지별 침수 원인을 조사·분석해 맞춤형 개선계획을 별도 수립하라. 수해 때마다 중장비 및 대로 토사를 파내는 땀질식 응급처방이 아닌 지속적 관리와 항구적 복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김홍구(사진) 경북도의원이 한 말이다. 김 도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에서 작성한 5분 자유발언이다. 그는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농경지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농경지 침수는 늘어나는 유속과 유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노후 배수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후 수리시설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수리시설 1만 6145개소 중 약 66%인 1만 691개소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화한 시설들이다. 이 중 50% 이상은 3347개소, 1945년 해방 이전에 지어진 무려 70년 이상 된 시설도 389개소나 된다. 더 큰 문제는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듬해 또다시 침수농경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도내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및 예산편성의 일원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양·배수장, 저수지, 보 등과 같은 수리시설은 사·군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다. 김 도의원은 "수리시설 관리주체가 다르고, 배수시설 유지관리 예산도 제각각이다 보니 농경지 침수 때마다 일관된 장기 계획이 아닌 일회성 응급 복구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도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빈틈없는 예방책이다.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하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月刊 정치와사람 **정치와사람**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시 주간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2

## 경북교육청, 경북농협으로부터 사랑의 경북 쌀 4,000kg 전달 받아

경북교육청이 9일 경북농협으로부터 도내에서 생산된 사랑의 경북 쌀 4000kg를 전달받았다. 행사는 안동시에 있는 경북농협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데 이상진 교육국장과 양동완 경제부본부장 등 업무관계자가 참석했다. 쌀 전달식은 지난달 19일 경북교육청과 경북농협이 체결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아침밥 먹기 식습관 형성과 경북 쌀 소비 촉진, 경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현

장 교육자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전달된 쌀은 약 1000만 원 상당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절감된 쌀 구매 비용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 대구시 소비자정책 대한민국서 '빛' 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평가 4년 연속 '매우 우수' ...

대구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3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을 평가,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반영하고 있다.

매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체계적 점검을 통한 소비자 및 사업자 거래의 공정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등 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과제를 대표과제와 기본과제로 나눠 평가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 대구시의 대표과제 국내결혼중개업 거래환경 개선 사업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2021년부터 4년 연속 소비자정책이 '매우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표과제인 국내결혼중개업 거래환경 개선사

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결혼중개업체 최다 분포 지역이라는 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이다.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개선 계몽운동을 추진, 전년 대비 소비자 상담건수가 19.2% 감소, 소비자들의 피해 저감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결혼중개업을 관리·감독하는 기초지자체와 소비자분쟁 구제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의 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것이 주요했다.

13개 기본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도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대구시민 맞춤형 소비자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신유형 소비자 문제와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구시민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조여은 기자



사진은 지난해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계몽운동 대구시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모습. (사진=대구시제공)

## 경북도, K-푸드 우수성 세계만방에 떨친다

### 도, 호주식품박람회 참석 수출 계약 100만불 달성 경북 씨푸드 위상 떨쳐

경북도는 수산가공식품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호주 식품박람회(Fine Food Australia)는 1984년부터 시작, 40회에 걸쳐 식품산업에 대한 무역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전세계 미국 중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12개국에서 참가했다.

참가기업 850사 중 한국기업은 41개사이다. 박람회에는 경북 우수 수산가공업체 4개 기업이 참가했다.

제품홍보 및 수출바이어 상담으로 상담실적

47건 수출 계약 100만불을 달성, 경북 씨푸드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렸다.

도는 지난 6일 호주 시드니에서 경북도와 호주유통업체 마이홈푸드기업(제)공동해산업연 구원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호주 신규시장 개척을 기념한다.

10월에는 마이홈푸드사가 운영하는 시드니 서늘마트에서 경북수산물 특판전을 열어 현지 시장 진입 유통 판로를 확보한다.

올 10월에는 캐나다와 베트남시장을 공략 한다.

미주시장 개척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 갤러리 아한인 마트 3개 지점에서 경북 11개사의 수산 기업 30여개의 품목으로 홍보관전을 연다.

캐나다 현지바이어를 초청하여 1:1 수출상담 회도 함께 한다.

같은 달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경북 해양수산 기업 7개사가 지역 바이어를 찾아가는 1:1 수출

상담회를 한다. 추후 온라인매칭 등으로 상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

11월에는 인도네시아국제식품박람회에도 6개사가 참가, K-푸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태국방콕식품전시회와 8월 홍콩식품박람회 등에 총 16개사가 참가, 상담건수 340건, 현지MOU체결 100만달러, 현장 판매 54만달러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도는 뉴노멀시대 미래 식량자원 블루푸드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27년 이후 수산물 수출 3억 불 이상 달성 위해 총매진한다.

현재 수출협력파트너십 구축 등의 세부계획이 담긴 경북 블루푸드 수출대전략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도 내수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 경북경찰청,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앞장

### 새달 31일까지 뎀페이커 허위영상물 집중 기간...

경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의 뎀페이커 성적 영상물 제작·유통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경찰은 경북교육청,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간담회'를 열고 공동대응한다.

간담회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배성훈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 기관별 자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청소년 선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경북경찰청은 새달 31일까지 뎀페이커 허위 영상물 집중 예방 교육기간으로 지정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특별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

하고 있다.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기관 연계와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간담회로 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전방위적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문 청장은 "청소년들이 불법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관계기관과 경북도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청소년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 대구교육청, 학교 뎀페이커 성범죄 대응

### 민관합동협의체 간담회 유관기관 간 협력 가동

대구교육청은 지난 6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학교 뎀페이커 성범죄 대응 민관합동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뎀페이커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 뎀페이커 성범죄 대응 TF 구축 △5개의 업무팀과 1개의 민관합동협의체 구성 △사전예방교육(STEP1)-사안처리(STEP2)-회복지원(STEP3)의 3-STEP 단계별 지원 등 뎀페이커 사안 신속 대응과 예방 체계를 구축, 일선 학교들로 전파했다.

이날 '민관합동협의체 간담회'에서는 성범죄 사안에 신속 대응하고 장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총경,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등 14명의 실무팀이 참석, 학교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실무자 향라이드 구축 △사안조사 협력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현장 교육 △민관합동협의체 공동 캠페인 △교육과정영역에 들머리 교육(정보윤리,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및 민관합동협의체 학부모교육 강화 등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중장기 예방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교육권보호센터의 심리검사와 찾아가는 상담 △에듀클리닉의 온라인 심리검사와 교원심리상담소의 상담·치유 △5대 종합병원 및 10개 권역별 협력병원의 전문치료 △교육청 변호사·과·가해 학생 및 교사 법률 상담 지원 △관계회복지원단의 대화모임과 학부모 교육 등 민관합동협의체를 통해 뎀페이커 성범죄 관련 피해 회복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뎀페이커 성범죄 대응을 위한 예방과 사안처리, 회복지원의 3-STEP을 구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iM뱅크,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

### 선제적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전격 체결

iM뱅크는 지역기업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혁신, 산업정책 - 금융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은 iM뱅크(아이엠뱅크)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4대 지방은행(부산, 경남, 전북, 광주)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사업재편제도 활성화를 위해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산업으로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의 지가 있는 수요기업을 적극 발굴, 추천한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재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기업은 협약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사업분야로 사업재편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iM뱅크는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힘쓴다는 목표를:



황병우 은행장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제도를 적극 활용, 미래 경쟁력을 갖춘 성장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금융지원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올해 대구 아파트 거래금액 5조3000억...

### 대구 거래량 1만5092건 지난해 거래량의 72%

대구의 올해 아파트 거래 금액이 5조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발표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 거래량은 30만1395건, 매매 거래금액은 139조3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9만1804건)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112%로 이미 연간 거래량을 넘어섰고, 거래금액(151조7508억 원)은 92%에 이르는 수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거래량 14만1911건, 거래금액 96조8442억 원, 지방은 15만9484건, 42조5002억 원이다.

대구의 거래량은 1만5092건으로 지난해 거래

량(2만915건)의 72%, 매매 거래총액은 5조3755만 원으로 지난해 한해 거래총액(7조1305억 원)의 75% 수준을 보였다. 거래량은 경남(2만388건)과 부산(1만7467건), 충남(1만5939건), 경북(1만5309건)에 이어 다섯번째, 거래총액은 부산(7조514억 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직방 측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시중은행들이 다주택자 생활안정 자금대출 한도 축소나 전세대출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취득 불가에 나서면서 앞으로는 수요자의 구매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명주 기자



### 삼국유사 퀴즈대회, 경산고 대상 영예

군위군에서 한국사 고등학생 역사 퀴즈대회인 '제15회 삼국유사 퀴즈대회'가 개최됐다.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퀴즈대회와는 달리 한 학교당 4인 1팀으로 총 21팀이 참가, 학

교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펼쳤다. 대회장에는 각 학교를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참석해 열띤 응원을 보냈다. 다양한 학교에서 준비한 현수막과 응원봉오

로 가득 찬 응원 속에 대회는 더욱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대회 결과, 경산고(한태영·김태양·이지윤·박진수)등학교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주고(김현우·오민석·허서준·이재규)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북구,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7곳 선정 성과

사수동·도남지 녹지 조성 등 국비 25억 5600만원 확보 도시행정과 중심 공모 발굴

대구 북구청은 2025년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생활편익)에 신청한 사업 7건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려, 총 25억 56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공모에서 단 2건만 신청해 모두 탈락했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된다. 공모사업인 환경문화 사업 분야에서는 사수동과 도남지 여가복지 조성 사업이 각각 선정되어 20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생활편익 사업 분야에서는 동변동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외 4건이 선정, 4억 8600만원의 국비를 따냈다.

성과의 배경에는 대구 북구청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있었다. 북구청은 사업 발굴부터 신청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했다. 도시행정과를 중심으로 공모사업 발굴 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지역 의원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심사위원의 현장 실사에는 지역 주민들과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의원들이 함께 나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열의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열정적인 참여가 결국 국전체 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북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과 추진에 힘써,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편익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뜻깊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달성군의회, 하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곽동환 위원장 중심 총 5명 의원 윤리 규범 심의·제정

달성군의회는 제9대 하반기 첫 회의인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4일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곽동환(사진) 위원장(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을 중심으로 박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다사·하빈), 전홍배 의원(국민의힘, 화원·가창), 박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풍·유가·구지), 이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곽동환 윤리특별위원장은 "의원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청렴함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만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더욱 함양,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 규범을 심의·제정, 필요하면 기존 규범을 개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윤리규범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조사하고 사실을 확인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심의 결정한다. 징계 조치는 경고, 사과 명령, 출석 정지, 제명 등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조여은 기자

## 추석연휴 가정폭력, 학대 '엄정 대응'

모니터링 등 선제적 위험 차단 18일까지 대응 강화키로

대구경찰(청장 이승환)이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등 확대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구지역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53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보다 60%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명절 기간에도 예년과 같이 신고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오는 18일까지 '추석명절 가정폭력, 학대 대응 강화 계획'을 집

중 실시한다. 특히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798개소 및 학대피해아동 108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발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역경찰, 112상황실, 여성수사팀 등과 정보를 공유해 연휴 중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상습, 흉기사용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의 경우 현행법으로 체포해 구속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황태용 기자



## 달성군, 동촌유원지 등 3곳서 직거래 장터

달성군 농민들 생산 40여 품목 신세계백화점서 행사 시민 호응

달성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달성군의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6~15일까지 두류정수사업소,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동촌유원지 일대 3곳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달성군 농민들이 생산한 제철 농산품과 농산품가공품 40여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구매금액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햅쌀, 찹쌀 등 사은품을

증정함을 물론, 우영차, 보리떡, 찹쌀산자 시식행사를 진행하여 보다 풍성하게 이뤄지도록 준비했다. 지난 6~8일까지 3일간 두류정수사업소(달서구 단산로 176)에서 추석맞이 대구·경북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다.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직거래장터는 12~13일 2일간, 육우구이데이 직거래 장터는 동촌유원지 일대(동구 효동로 6길 57)에서 14, 15일 이틀간 진행됐다. 앞서 군은 신세계백화점(B1.식품관), 롯데백화점(B2.식품관)에서도 진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여은 기자

## 수성구 '2024 여성UP엑스포' 참가 홍보관 운영

여성 정책사업 소개 영상 제작 캐릭터 홍보존 마련 공예품 전시

수성구는 지난 6,7일 이틀간 엑스코에서 열린 '2024 여성UP엑스포'에 참가, 여성친화도시 수성구 홍보관을 운영했다. 9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서 수성구는 △공방창업교육과정인 '뚜비공작소' △여성 안전 증진사업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 조성' △여성 친화문화확산을 위한 '행복수성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정책을 홍보했다. 수성구는 뚜비 캐릭터 홍보존을 마련해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대표 허브기관인 수성여성클럽이 운영하는 '뚜비공작소' 수강생이 뚜비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했다. 환경지킴이 뚜비 포토 부스를 설치, 뚜비에 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관람객에게 뚜비 인형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여성친화도시 홍보존에서는 행복수성 구민참여단이 폐현수막으로 직접 제작한 선풍

기 뒤편을 무료로 배부하고 여성 정책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준비해 여성친화도시를 향한 수성구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행복수성 구민참여단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환경, 돌봄, 평등 등 공통 가치를 추구하는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수성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군위군 신규공무원 12명 임용식 개최

선서·군 영상 시청·간담회 가져

군위군은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 1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은 특별히 신규공무원들의 가족 14명을 초청해 가족들이 직접 자녀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신규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신규공무원 선서, 군위군 홍보영상 시청,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김진열 군수는 신규공무원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된 신규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군위군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축하와 격려를 했고, 이에 신규공무원들도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

면서 보는 이들을 미소짓게 만들었다. 임용식에 참석한 한 신규공무원은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열심히 배우고 군위군의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으며, 함께 한 가족들도 신규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김진열 군수는 "공직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군위군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군위군의 미래를 함께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신규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식료품 100세트 행정센터 전달

대구 동구 해안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지난 6일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료품100세트(350만원 상당)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민수 해안동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을 따뜻하

게 맞이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순 해안동장은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민간사회안전망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중구, 반월당서 감염병 예방 계몽운동

감염관리 중요성 인식 개선 전달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방법 홍보

대구 중구는 감염병 예방관리 주관을 맞아 11일 반월당역 중앙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계몽운동을 한다. '감염병 예방 관리 주간'은 진드기·설치류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으로부터 추석명절 연휴기간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감염관리 중요성의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운영된다. 계몽운동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준수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 시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감염병 예방 퀴즈 등 행사와 홍보물을 배부한다.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올바른 손씻기 6단



계 방법, 식중독 예방을 위한 건강간식 조리법, 결핵 예방 등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진드기에 물렸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한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촘촘한 대응 관리로 감염병 없는 안심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유학생 치안봉사대 12기’가 출범했다. 지난 6일 경주시, 경주경찰서, 경주YMCA와 동국대WISE캠퍼스 및 위덕대학교 재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했다.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는 2011년 경주시, 경주경찰서, 경주YMCA, 동국대WISE캠퍼스, 위덕대학교가 MOU를 체결, 올해 12번째 이어

오고 있다. 올해는 동국대와 위덕대에 재학 중인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29명이 치안봉사대 12기 대원으로 선발, 지역 민관 합동 순찰, 외국인 관련 범죄 통역 지원, 각종 국제행사 통역 및 안내 활동 등을 한다.



# 경주시, e스포츠 산업기반 구축 마련

경주 지역 특색 살린 경기장 3일간 3만 여명 행사장 방문 경제활력 쑥쑥 불어 넣어...

경주시는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전’에서 한화생명팀이 우승을 거머쥐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실내체육관 인근 타임캡슐광장에서 팬 페스타를 시작으로 7일 결승진출전, 8일 결승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 대회 기간 3만 여명이 주 경기장인 실내체육관과 타임캡슐광장을 방문, e스포츠의 뜨거운 열기를 재확인했다. 팬 페스타 내 대형스크린의 경기 실시간 생중계는 경기장에 입장하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대회 중계를 관람할 수 있는 뷰팅 파티뿐만 아니라 △경주시립신라고취취대 공연 △QWER

축하무대 △인플루언서 경기 △경주시 및 LCK 홍보부스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는 행사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팬 페스타 야외 행사장에서 진행된 푸드존도 빛났다. 행사기간 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 팬들을 위한 홍보물도 리유저블(reusable) 가방으로 제작해 ESG 경영 모범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는 종합상황실, 의료지원,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으로 대회 안전에 철저를 기했다. LCK 서머 결승전 티켓 소지자에 한해 경주월드,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루지월드, 정글미디어파크 등의 다양한 방문 할인 행사는 경주 곳곳의 관광명소를 알리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4 LCK 서머 결승전이 아름다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주시는 지속적으로 e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9일 오전 국·소·본부장회의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고 재해예방 신규사업 역대 최고 국비 확보와 함께 역대 최다 2개 사업 지구 선정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 경주 황남동 행정복지센 준공...

행정서비스 질 향상 크게 기여 연면적 715㎡, 지상 2층 규모 경주황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단장을 마쳤다. 시는 9일 사정동 172-1번지 일원에서 새롭게 건

립된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일부터 신청사 업무를 개시한 황남동 행정복지센터는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715㎡,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신축)됐다. 기존 164㎡ 규모의 회의실 리모델링공사도 함께 진행했다.

## 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시행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 1년간 지원

경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4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68가구 규모로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까지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한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은 월 임대료 60만원 및 임대보증금 500만원 이내로 계약한 건이 해당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월9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연소득이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원직 등은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ingu277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 재해예방 신규사업 국비 역대 최고 764억 확보

행안부 주관 모아3·이조지구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 선정

경주시가 재해예방 신규사업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국비 확보와 함께 2개 사업 지구가 동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9일 오전 국·소·본부장회의를 열고, 이번 재해예방 신규사업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도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신규 재해예방사업으로 ‘모아3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재해예방사업’과 ‘이조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764억 원을 확보했다. 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 위험 지역 및 노후화된 급경사지, 저수지 등을 정비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하수도, 하천, 펌프장 등의 단위시설을 지역 중심으로 일괄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 시는 ‘모아3지구’에 2029년까지 423억 원을 투입, 배수펌프장, 하천 정비, 교량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조지구’에는 341억 원을 투입해 배수펌프

장, 하천 정비, 우수관로 확장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일대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내습시 농경지 및 주택 71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더해져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사업으로 경주시에서 2곳이나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두 번 다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더불어 경주시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 경주시, 2024 양성평등주간 한마음대회 개최

양성평등 실현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구현 앞장

경주시가 9일 시청 앞천홀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경주’라는 주제로 2024 양성

평등주간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양성평등 주간에 맞춰 이를 기념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시가 주최하고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낙영 경주시장 내외를 비롯한 이동

협시회의장, 양성평등유공자 및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라향가문화원과 신라천년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손귀영 경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의 개회선언,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활동영상 시청, 양성평등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전원이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로 범시민 역량 결집에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 영천 자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 활동

영천시 자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추석명절을 맞아 '추석맞이 사랑더하기 선물 세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추석맞이 나눔 행사는 자양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금고 재원으로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이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직접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정성우 민간위원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고, 지역의 취약계층이 마음만은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이번 연휴 청도 레일바이크·와인·숙박을 한번에”

## ‘가족 관광시설’ 투어 홍보 주요 시설 통합 정비 만전 레일바이크 전통놀이 행사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청도군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주요 관광시설 통합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연경관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도레일바이크(청도읍 신도리 919-2)에서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국코미디타운(이서면 이서로 565)의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만화방에서 어린이들 향수를 즐기다가 △와인터널(화양읍 송금길 100)에서 와인을 시음하며 신비로운 터널을 구경하고, 밤에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운문면 신화랑길 1)에서의 오토캠핑장, 카라반 등에서 숙박한 후, 다음날에는 △청도소싸움미디어 체험관(화양읍 남성현로 346)에서 아이들과 함께 최첨단 놀이시설을 즐기는 코스를 추천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한 행사가 준비된 시설도 있다. 청도레일바이크에서는 14~18일까지 ‘추석맞이 전통놀이 체험’이 열린다.

투호와 윷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추석 당일에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제기차기 대결이 진행된다. 이기면 경품도 받을 수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인접한 한국코미디타운에서는 쇼콜라티에(빼빼로 만들기) 체험 교실도 운영한다.

추석 당일에는 △한국코미디타운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은 휴관하지만 △청도 와인터널은 오후시간에 한해 운영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 및 귀성객들을 비롯한 군민께서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고, 청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다양한 관광명소에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청도군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주요 관광시설 통합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청도군, 도시 청년들과 농창업 트렌드 교류

### 유관 기관 지원 프로그램 청취 블루베리·사과 농장 방문 체험

청도군은 7,8일 이틀에 걸쳐 도시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창업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도 청년농업인 육성프로젝트란 영농을 꿈꾸는 도시 청년 및 청소년들에게 성공적인 농업인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도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7,8일 양일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첫째 날 오전에는 청도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신활력플러스사업단 등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 프로그램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블루베리 농장과 사과 농장을 방문하여 실제 농작물의 재배 과정을 알아가며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둘째 날에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 방문하여 최신 농업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고, 다양한 농업 관련 정보를 얻는 기회 제공을 통해 첨단 농기계와 스마트 농업 기술을 체험하며 창농 시에 청도군에 적합한 영농 방안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농업 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김천 울곡동새마을부녀회, 나눔냉장고 기증

###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추진 동참 직접 제작한 농작물 기부 활동



김천시 울곡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울곡동새마을부녀회에서 “인정이 꽃피는 나눔냉장고” 사업을 위한 냉장고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울해로 시행 6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울곡동의 대표적인 주민주도형 복지사업인 “인정이 꽃피는 나눔냉장고”는 최근 냉장고의 노후화도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울곡동새마을부녀회에서 나눔냉장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먹거리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새 냉장고를 기증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영자 울곡동새마을부녀회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조성이라는 새마을이념 구현과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동용 울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새마을부녀회의 톡 큰 기부에 감사드리며, 위원들과 함께 나눔냉장고 운영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청송소방서, 숙박시설 소방시설 현장 점검

### 완강기 설치 확인·사용 교육 등

청송소방서는 최근 부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관내 숙박시설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6일 청송소노벨을 방문하여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지도는 숙박시설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내용으로는 △대상물의 화재 위험성 평가 및 예방 지도 △완강기 설치 확인 및 사용 교육 △전자제품 취급 시 전기화재 주의사항 안내 △소방 안전관리자 대피 요령 및 안전 컨설팅 △관계인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질문·답변 시간 마련 등이다.

문정환 소방서장은 “고층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재산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병문 기자

## 영양군, 노후 주거지 ‘뉴:빌리지’ 공모 도전

### 국토부, 전국서 30여곳 선정 설명회 시작해 설문 등 진행

영양군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영양읍 서부리 중 일부 지역(약 13.6만㎡)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정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단독 등 4층 이하 노후 저층 주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영양군은 주차, 안전, 공원 등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주민은 기금융자, 도시·건

축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여 국민에게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데 목적이 있다.

10일 영양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며, 전반적인 사업설명과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 공원, CCTV 등과 집수리, 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에 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사업지구 내 곳곳에 배치된 알림포스터 및 현수막, 영양군청 홈페이지 등에 포함된 QR code로도 상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뉴:빌리지 사업은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필요 시설 및 주택정비 참여 의사 등을 파악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공모에 입찰 것이며 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급년 10월 초 뉴:빌리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심사 등 심사를 통해 12월 경 최종 30여 곳 을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권윤동 기자

## 제3회 영천 K-POP 청소년 페스티벌 성료

### 40개 팀 참여 포항예술고 대상 2000여명 관람객 참여 큰 호응

영천시는 지난 7일 영천강변공원 주무대에서 제3회 영천 K-POP 청소년 페스티벌 경향북도 가요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영천시청년연합회가 주관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고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2000여명의 관람객이 함께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넘치는 끼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도내 총 40개 팀이 가요와 댄스 부문에 참가 신청을 해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는

16개 팀이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참가 팀들은 각자의 창의적인 안무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상은 팀원 간의 호흡이 돋보인 WAGS(포항 예술고) 팀이 차지해 상금 3백만원을 수상했다. 가요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대일(사동고), 우수상 응답하라 06커버(경주공업고), 장려상 로그인(김천고), 인기상 G-soul(근화여자중)과 신유정(현일고) 팀이 각각 수상했다.

댄스 부문에서는 MFJ(성남여자중 외 연합)가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우수상은 나래(성남여고), 장려상은 더스크(영천여고 외 연합), 인기상은 블루걸스(영천여중)와 화랑(화랑중) 팀이 각각 수상했다. 축하공연으로 인기 가수 코요태가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



며,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관람객들에게 큰 환호를 받으며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꿈과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 영덕청년회의소 회장 ‘사랑나눔 알뜰데이’ 동참

### 바자회 행사서 식품 기부 활동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영덕청년회의소 이정호 회장은 오는 12일에 열리는 ‘제6회 사랑나눔 알뜰데이’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150만 원 상당의 달걀을 강구면에 전달했다.

‘사랑나눔 알뜰데이’는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의 관심과 나눔 참여로 이뤄지는 바자회 행사로, 매년 수익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다음 해 강구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영덕청년회의소는 이번 물품 기부뿐만 아니라 행사에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 운영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하게 된다.

이밖에 흥일식품, 더 동쪽으로 가는 길, 영덕주조 등의 기업이 지원에 나서고 있고 관내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매년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희동 강구면장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단체, 주민들이 계시기에 우리 지역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 울릉경찰, 스토킹 예방 부스 운영

울릉경찰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뱀피이크 성범죄와 교제폭력·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 예방 홍보 부스 운영을 했다.

울릉경찰서는 이날 매년 주최하는 제55회 울릉군민체육대회를 맞아 부대행사로 울릉중·고등학교 청소년과 울릉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뱀피이크 성범죄 예방법과 교제폭력·스토킹 범죄 유형과 대처방안을 안내하고 홍보물품과 같이 성범죄관련 예방 포스터 등을 교부했다.

울릉경찰서는 “뱀피이크 성범죄 사전예방 홍보 활동 강화 및 엄정 처벌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 의성군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의성군은 지난 6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사회복지중사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을 가졌다.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선서문 낭독, 복지발전 유공자 등 20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루어졌으며, 2부에는 종사자들이 함께 즐기며 심신을 위로받을 수 있는 심 콘서트를 진행했다.

부대행사로 복지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종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마음건강 상담소를 운영했다.

배광우 민간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상주, 풍수해 생활권 재해예방 사업 최종 선정

지평지구 등 풍수해생활권 정비 상주시장 기재부 방문 행정 활동 도비 62억원 포함 416억원 투입

상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대상지는 상주시 이안면 구미리 등 5개리 일원으로서 지평천, 두곡천 및 세천 3개소가 위

치한 지평지구이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하천, 급경사지, 소규모공공시설 등 단위시설별로 시행하던 재해예방사업을 단위시설별 재해발생 유형을 종합적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연재난에 따른 모든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주시는 철저한 현장답사와 자료준비를 통해 경상북도(1-2차 사전심사)와 행정안전부

심사(3차 최종심사)에 대비하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7월 22일 적극적으로 강영석 상주시장이 직접 기재부를 방문해 사업선정을 호소했고 관계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를 방문해 건의하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여기에 더해 지역구 입자 국회의원도 공모

초기부터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소통하는 등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급경사지 사면보강, 토석류 유입방지시설, 세천정비 및 교량재가설 등이 포함된 종합 정비사업으로 국비 208억원, 도비 62억원을 포함해 총 416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해예방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은 물론,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강영석 시장은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금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주시가 더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상주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 동행축제, 문경 3개 전통시장 감사 이벤트

문경중앙·전통시장 등 참여 구매 영수증 지참 시 경품 행사

문경시는 9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 문경중앙시장, 문경전통시장, 가은아자개시장에서는 영수증·경품·물렛 행사 등 평소 전통시장을 찾아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문경중앙시장은 9~14일 기간 내 문경중앙시장 상인회원 점포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14일 16시부터 문경중앙시장 점촌점빵길 토요장 입구(야외주차장)에 오면 물렛게임을 통해 사은품을 드린다.

문경전통시장은 7~12일 기간 내 문경전통시장 상인회원 점포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지참 시 물렛행사에 참여 가능하다. 300만원 상당의 농수축산물을 준비한 경품행사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다.

경품추첨은 12일 16시에 진행한다. 가은아자개시장은 5~14일 기간 내 가은아자개시장 상인회원 점포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14일 15시30분까지 장터 무대로 방문하면 물렛게임을 통해 사은품을 증정한다. (영수증 3만원당 물렛게임 1회 참여가능, 사은품 수량 200개) 또한 물렛 행사에 참여한 모든 고객분들께 경품추첨권을 제공한다.(영수증 금액 3만원당 1매) 경품추첨은 14일 16시 장터 무대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재)문경시상관활성화재단(054-552-5586), 문경전통시장(054-572-1223) 및 가은아자개시장(054-572-5556)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의 따뜻함도 느끼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군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기간으로 정하고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 지류 한도 올려 봉화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봉화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기간으로 정하고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형마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장보기 행사는 9일 억지춘양시장과 12일 봉화상설시장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며, 봉화군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 이용부위를 조성하고자 한다.

박현국 군수도 억지춘양시장과 봉화상설시장을 모두 찾아 명절 제수용품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을 맞아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및 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지류의 경우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상기 기자

### 예천군, 추석 연휴 당직 의료기관·약국 운영

예천권병원 중심 진료체계 구축 군청 누리집서 운영 기관 확인

예천군은 추석 연휴 동안 관내 병의원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해 진료 편의와 응급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주민과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의료기관인 예천권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예천소방서와 연계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속히 안내하는 등 긴급 지원 태세를 갖춰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정보는 예

천군청 누리집 또는 보건소·지소·진료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연휴 동안 당직의료기관과 약국 운영으로 공백을 최소화해 주민들과 귀성객들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병·의원과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정보는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누리집(www.e-gen.or.kr)에서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약품은 안전 상비 약약품 판매점으로 등록된 24시간 편의점 20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내역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송명주 기자

## 의성군 대구농산물도매시장서 간담회 개최

경매사·중도매인 의견 청취 출하·판매 활성화 상호교류

의성군은 의성진까지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출하가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지난 4일 의성조공법인, 서의성농협 조합장 및 가지공동출하회원, 공무원 등 20여 명이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가지 경매를 참관하고 유통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으로 출하중인 가지에 대한 청과법인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

취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경매 참관을 통해 전반적 유통 동향을 파악했다. 가지공동출하회와 중앙청과군 출하·판매 활성화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의성지역은 대구농산물도매시장 가지 반입량의 50% 가량을 출하하는 중추적인 가지 산지로 역할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농가조직화 및 유통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판매 교섭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7월엔 과실류 수도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서울 가락농산물도매시장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주수의성군수는 "전국 최고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업인이 제값 받는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 영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곳 선정

행안부 공모 가흥·상망 정비 가흥지구 총 420억 원 투입

영주시는 행정안전부 '202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모에 가흥지구, 상망지구 2개소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배수로 및 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침수피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영주시를 비롯해 경북 8곳으로, 선정지구는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영주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2022년까지 자연재해저장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올해 4월 행정안전부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후, 3월에 사업 신청을 완료했다. 이후 중앙부처의

현장조사, 종합평가 등 추진과정을 성실히 수행해,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2028년까지 총사업비 660억원(국도비 430억원)을 투입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가흥지구의 경우 사업비 420억원을 투입해 휴전동 688-5번지 일원에 고지배수로 2km를 신설하고 우수관로 3km를 정비할 예정이다. 상망지구에는 사업비 240억 원으로 상망동 841-6번지 일원에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 2km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최근 들어 빈번해진 극한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지난해 20여 년만의 수해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에 국비를 투입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해 수해로 시민들께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주시 건설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민주평통 문경시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등 발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는 지난 6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변화 및 국론결집이라는 주제로 2024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유치 포포포포, △개회식, △탈북민 멘토링 사업 추진실적 점검, △자문위원 통일외견수령,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문경시협의회 하반기 운영방안 및 주요 통일 활동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우현 협의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메시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 홍보 및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해 국민공감대 확산에 다 같이 동참하자"고 말했다.

신한국 시장은 "통일로 가는 길에 누군가는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주어야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다"며, "평화통일의 견인차"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도 달 라 지 야 합 니 다 대구 광역 일 보 는 독 자 가 습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보 www.dgy.co.kr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웅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칼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소고(小考)

민계식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20세기 초부터 70여 년에 걸쳐 진행된 '공산주의에 대한 역사적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확연히 입증됐다.

물론 민주주의도 완벽한 정치 제도는 아니지만,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 누구나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느 정치 체제도 제공하지 못하는 장점이다.

서방 선진국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대한민국도 그러한 나라들 중의 하나다.

쉽게 말해 정치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지적 수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역적 특성이 다른 다양한 부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공동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그러한 구성원, 즉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기반으로 채택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공문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대국적인 자세와 인내심, 그리고 서로 서로에 대한 이해 내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망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요망되는 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한 세대 전만 해도 구하기 어려웠던 생활용품들이 대량 생산으로 싸게 공급돼 어느 가정이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흔한 세상이 됐다.

게다가 신세대들은 저출산 현상으로 한 가정의 자녀가 한 명도 채 못 되는 상황에서 과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앞으로의 세대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원하는 것은 알면서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아침에 주문한 물건이 저녁때면 배달되는 세상에서 과보호 받으며 자라난 새로운 사

회구성원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국적인 인내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지해야 할 사회구성원들이 너무나도 '비민주주의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 국가들에 의해 신(新)냉전 현상이 빚어지고, 여기에 더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신(新)파시즘이 겹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현상보다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비민주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내적 현상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유엔에 따르면 합계출생률(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2.2명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합계출생률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0.6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나라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이 같은 초저출산 현상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한 가정이 두 자녀 이상 출산해 후손들이 원만한 사회생활과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초등학교 때부터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가'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및 '사회 정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정책과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의 정치 논평

민주당이 총력 다해 지킬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라 '민생'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이 '문재인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닿자, 민주당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잇달아 예방했습니다.

지난 7일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경남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최근 검찰의 모습에 국민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오늘 민주당은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 "검찰 수사가 흥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범법과 규정, 그리고 절차에 따른 검찰의 정당한 수사가 민주당의 눈에만 '보복'으로 보입니까? 그간 불거졌던 의혹들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니 두려운 것입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자 '결집용 쇼'를 하는 동안에도 국회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예기한 '민생부터 끌어안기'와,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은 '지지지 결집 쇼' 앞에 모두 다 공염불이었던 것이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야 할 일은 '문재인 지키기'가 아니라, '민생 챙기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객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 한동훈 대표가 진실 밝혀야



총선 대법안주당 수석대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국민은 이 나라에 여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기는 한지 묻고 계십니다. 당시 공천의 최종 책임자였던 한동훈 대표가 직접 답할 차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게 벌써 지난주인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색한 변명만 내놓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은 오히려 의혹에 대한 시인에 가깝습니다. 개입은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혹은 '그분'께서 하위로 공천 장사를 했다는 실토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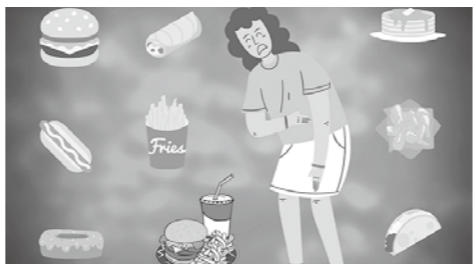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진실을 밝혀주세요. 한동훈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총책임자입니다. 당연히 공천의 최종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어떤 후보자가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용산의 역린을 건드렸다가 낙마한 사건도 유명한 '여사 시리즈'입니다. 결국 '한동훈표 공천의 실상'은 '김건희표 공천'이었던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공당의 대표로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면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의 물증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총선을 지휘했던 한 대표가 공천 개입을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주세요. 한 대표가 계속 진실을 외면한다면 자신도 공천 개입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건강소식

가을 식중독 더 조심하세요



끝날 줄 모르던 무더위가 서서히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모양새다. 최장기간 계속되던 열대야도 한풀 꺾여 밤엔 제법 가을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여름철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식중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중독은 여름에 가장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식중독은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지난해 월별 식중독 발생 추이'를 보면 식중독 발생 건수는 9월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7월이 41건, 8월이 3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 환자 수도 1590명으로 9월이 1위를 차지했고, 7월(1536명), 8월(977명) 순이었다.

극심한 무더위에 음식이 금세 상하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7, 8월보다 더위가 한풀 꺾이는 9월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도 날씨가 밖에 뒤도 괜찮겠지' 하는 방심 때문이다.

식약처는 "낮에는 식중독이 발생할 만큼 기온이 상승하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선선한 날씨가 되다 보니 상온에 식품을 보관하는

등 부주의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반드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요령으로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사이, 손바닥, 손등, 손톱 밑을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기, 가열 조리 식품의 중심부가 85°C 이상이 되도록 1분 이상 가열해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를 강조하고 있다.

높은 온도에는 세균이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음식은 가능한 한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

이미 세균이 증식해 독소를 만든 경우에는 아무리 익혀도 독소에 따른 식중독은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냉장고를 맹신해서도 안 된다. 냉장 온도에서도 증식하는 식중독균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냉장고에 음식물을 꽉꽉 채워 넣어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면 더욱 식중독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서울대 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햄, 두부 등은 개봉 후 밀폐보관하고 빨리 섭취하기 △먹다 남은 식품 재가열 후 냉장보관하기 △냉장보관 식품은 섭씨 70도 이상에서 3분 이상 재가열한 후 섭취하기 △냉장 온도는 5도 이하, 냉동 온도는 -18도 이하로 유지하기 △냉장고는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청소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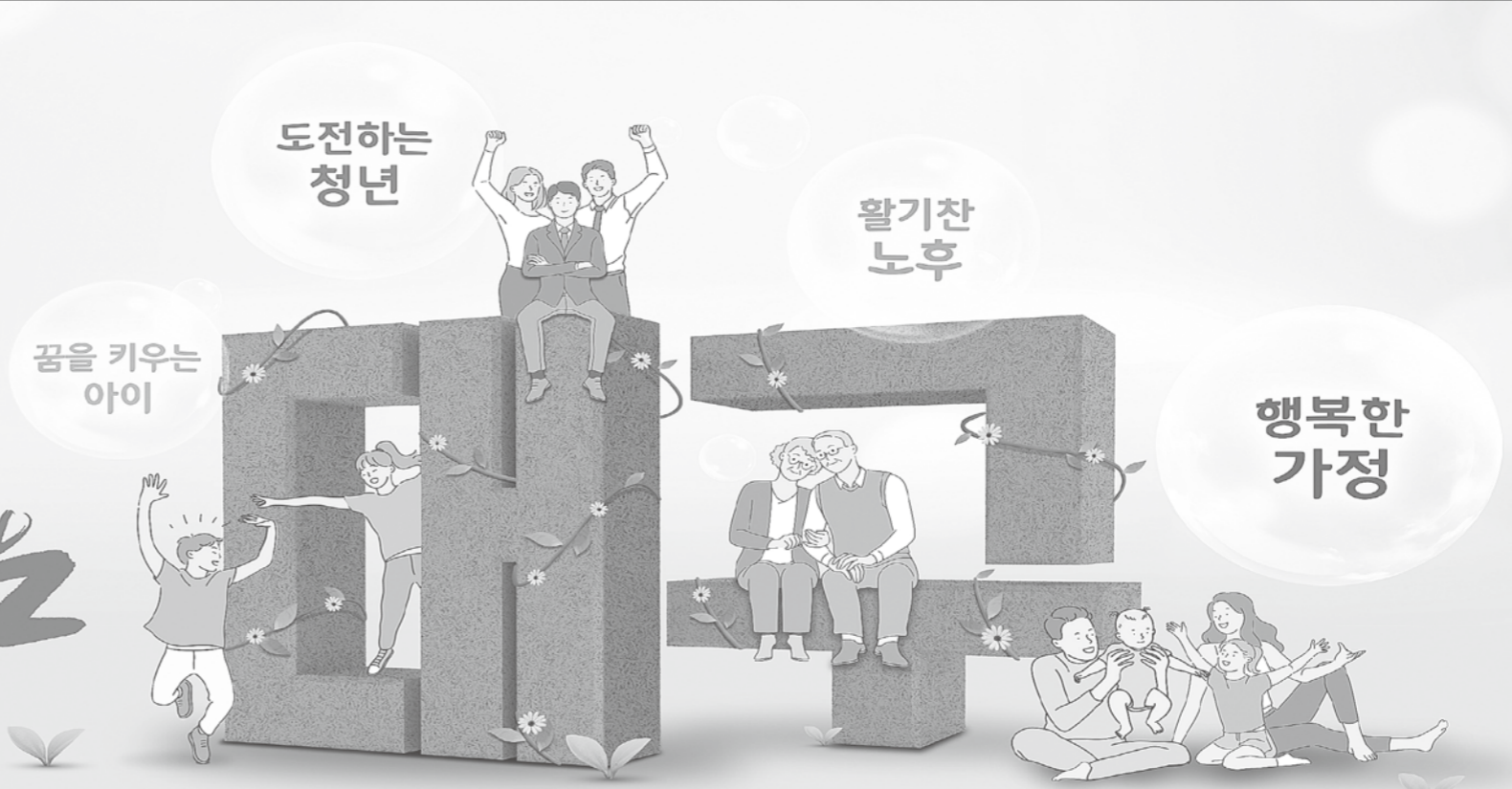
만약 식중독에 걸렸다면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사제를 설사를 멎게 하는 약으로 생각해 무턱대고 지사제를 먹는 경우가 많지만 지사제는 설사를 멎게 하는 게 아니라 장운동을 멈추게 하는 약이기 때문이다.

장운동이 멈추게 되면 되레 독성이 강한 균들이 장내에 머물면서 증식하게 되고 심한 경우 발열, 혈변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독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문이 바로  
**'대구광역시일보'** 입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